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화 구상 '본격'

### 제주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 지난해 100회 이상 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에 태양광사업 허가권 이양 추진 오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익 공유화 방안 마련 토론회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의 공유화에 대한 구상이 본격화된다. 특히 제주도는 태양광발전사업에 한해 허가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제주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공유를 이행하고 있지만, 태양광은 주민생활과 더욱 밀접함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 관리 및 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

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중산간지역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추진으로 출력제한 심화 가능성과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고, 이러한 계통·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공공적 관리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과잉출력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로 풍력 발전기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저장·송출하지 못해 발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출력제어 횟수는 지난해 103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록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3MW 초과) 허가권을 제주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해 제주도지사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적 관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제주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상황 등을 고려해 변동성이 큰 태양광발전사업에 한해 허가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8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태양광 권한 이양 이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허가권 이양'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의 공유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제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태양광발전의 공공적 관

리의 필요성,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이익공유액 표준 산출기준 및 적정 수준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류하니 한양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익공유 대상 기준과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이익 공유 규정방안, 이익공유 수준, 예상되는 이익공유액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의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의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익공유 대상을 3메가와트(MW) 초과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정하고,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경우 지방기금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과 이익공유 수준은 현재 풍력발전사업자가 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의 17.5%를 적용해 20년간 예상되는 기부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시가 운영 중인 자연장지 시설인 '용강별숲공원' 전경.

제주시 제공

## 자연장지 대세?... 윤달 끼고 이용 급증

### 제주시 용강별숲공원을 들어 4월 말까지 1599구 안장 1분기 이용자 전년 한울누리공원에 비해 갑절가량 증가

윤달(3월 22~4월 19일) 기간 제주시 용강동에 조성된 자연장지 시설인 용강별숲공원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 기준 용강별숲공원에 안장 건수는 총 1599구에 이른다. 1월 99구, 2월 205구, 3월 604구, 4월 691구 등 윤달 기간에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824구가 안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은 만장된 시설인 한울누리공원에 지난해 1분기 570구가 잠든 것에 견줘 용강별숲공원은 올해 1분기에만 908구가 안장됐다.

이용자들의 거주지별 현황을 보면 도민 1424구, 도와 175구다. 사망 직후 화장해 이용하는 경우 124구(8%)보다 기존 묘지를 이장한 개장유골이 1475구(92%)로 대

다수였다. 유형별 안장 현황은 잔디형이 1197구(73%)로 선호도가 제일 높았다. 이어 수목형 303구(19%), 정원형 99구(6%) 순이다.

현재 용강별숲공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무원이 안장 절차를 대행하면서 장례 비용이 절감되고 별초 등 묘지 관리도 이뤄진다. 연중 이용이 가능하고 사전 예약 없이 방문 즉시 절차를 거쳐 바로 안장할 수 있다.

제주시 측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 개장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고인의 평안한 안식과 유가족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서 어린이날 행사

서귀포시가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5일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기념식 및 'HAPPY! 아이사랑 큰잔치'를 연다. 우천시에는 월드컵경기장 내부 리셉션홀로 장소를 옮겨 행사가 치러진다.

서귀포시 어린이집연합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2부로 나눠 운영된다. 제1부 기념식에서는 모범어린이 24명과 아동의 안전·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손민하(안덕초), 배선재(대정초),

황윤준(서호초) 어린이가 모범어린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다. 강지혜(사계초), 정재희(중문초) 어린이는 도지사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제2부 행사에서는 마술쇼 등 축하공연과 함께 놀이 부스(페이스페인팅, 썸캡 만들기 등)가 운영된다. 아울러 체험키트 3종(자동차 만들기, 시나몬 보기 탈취제 모빌 만들기, 텀블러백 만들기) 각 800세트를 워크스루로 배부하는 행사도 있다.

백금락기자



갯 잡아 올린 자리돔 3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어민들이 갯 잡아 올린 자리돔을 배에서 내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확대

### 서귀포시, 소득기준 2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서귀포시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월 200만원 이하에서 2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생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운영, 오는 26일까지 대상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입자가 3년간 소득 활동을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 또는 30만원

까지 추가 적립해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월 30만원이 매칭돼 3년 만기 시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고,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원이 매칭돼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통장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15~26일은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백금락기자 haru@ihalla.com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인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 페르카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